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도교육청, 특성화학교·위탁기관 대표 등 TF 구성 집중 논의... 28일 5차 협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도 권역에서는 첫 번째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TF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2교, 4명)와 대안교육위탁기관(5기관, 5명), 도교육청 관계자(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센터 설립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5차 협의회

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차 회의와 지난 4월30일 이 해속 의원이 주관해 열린 도의회 간담회에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도교육청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도교육청의 경우 중간역할이 아닌 대안교육과 위탁교육기관을 통합 책임관리, 전문 인력 배치,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정지원 확충,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 역

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과 보급,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의 맞춤형 정보 제공, 감사플래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위탁기관의 행정 및 교무업무 지원, 학습 자료의 DB 공유 등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센

터 설립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광역시교육청에 비해 열악한 대안교육위탁기관지원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지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를 통해 발의해 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전국에서 5번째로 운영하게 된다.

/기동취재반

졸업생 임용 합격률 제고 국립대 육성사업 논의 전주교대, 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열어

2018년도 제2차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주관으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장협의회는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교가 참석하여, 전국교대 졸업생 임용시험 합격률 제고방안,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의 및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비 결산 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어 총장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김형기 교원양성연구과장)와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관대학인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은 "이번 전국 교원양성대학교의 총장님들을 우리대학교로 모실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어려운 현안을 함께 대처해나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는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12개 대학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국제안전도시 인정”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14일 전주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확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교육감표창 428명 선정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에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전북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내 우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표창을 받는다.

포상별 수상자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장관표창 146명, 교육감표창 274명 총 428명이다.

수상자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평생복지, 교육혁신 등의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교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습부진아 지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독서교육 활성화, 진로직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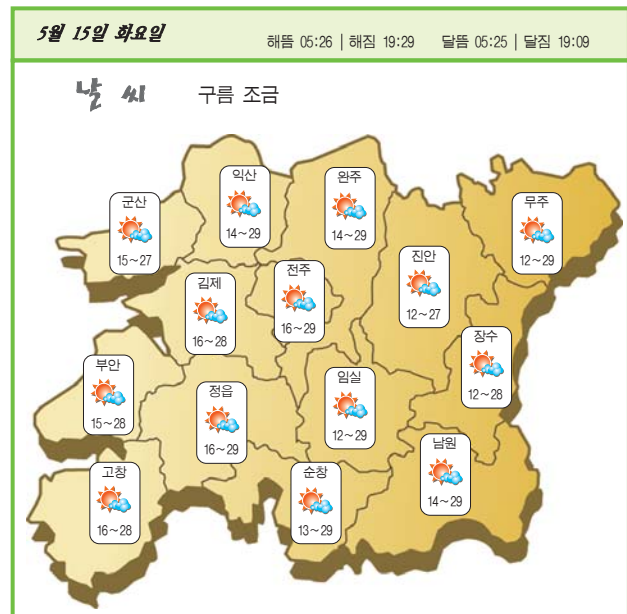
운영,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위기학생 지도, 학생의 적성 개발, 주요 교육정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 교원과 2016년 스승의 날 포상 당시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가를 사유로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25명의 교원이 수상하게 되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부안중학교 교사 최영숙 님은 학생중심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수학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수업혁신을 위해 공헌하였다.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편안한 마

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은 교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육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속에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과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우대하는 전북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 현장을 사랑하며 ‘행복한 우리 아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육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시민 손으로 독서대전 '봄엽'

전주시, 8월까지 독서대전 연계 시민공모전 열어 독후감 등 통해 참여 가능... 8월 21일 수상작 발표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독서·출판문화 축제인 '2018 전주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을 연다.

전주시는 '2018 전주독서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2018 전주독서대전' 홍보와 시민들의 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14일부터 3일간 전주한벽문과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책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트레일러 UCC △책 읽는 우리, 독서 사진 △나도 어린이그림책 작가 △책 속에 숨겨진 전주 찾기 △2018 전주의 책 독후감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전 접수는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www.jbook.kr)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전주독서대전 실무기

획단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8월 21일 발표된다.

시는 이번 시민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해서는 '2018 전주독서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할 계획이며, 선정 작품과 우수 작품들은 행사기간 동안 상영·전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방침이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시민공모전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2018 전주독서대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며 "전주독서대전이 시민의 독서생활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책 축제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공모전 참가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 또는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www.jbook.kr)를 참고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전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올 1차 검정고시 합격률 88%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률 도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4월 7일 시행된 2018년 1차 검정고시 시험에서 4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1차 검정고시에서는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전주시 꿈드림)의 청소년 56명이 응시해 49명이 합격, 8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그간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돕기 위해 스마트교실을 진행해왔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